

지역 매 아 리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생명사랑 자살예방 교육 실시

정읍시 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김재원)는 지난 30일 서양여자고등학교 교

사 45명을 대상으로 '생명사랑·생명존중' 자살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교육현장에서 자살위험 신호를 직접적으로 마주할 수 있는 교사를 생명지킴이로 교육하기 위함이다.

교육은 자살 위험성이 있는 대상자를 조기 발견하여 예방할 수 있도록 개발된 한국형표준 자살 예방 프로그램인 '보기·듣기·말하기'를 바탕으로 실시했다.

자살을 암시하는 언어, 행동, 상황 등을 알아차리는 '보기', 실제 자살 생각을 묻고 죽음과 삶의 이유를 공감하고 경청하는 '듣기', 안전점검 목록을 확인하고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말하기'의 단계별 과정이다.

교육에 참가한 한 교사는 "일반적인 강의식 교육이 아닌 사례 및 토론 중심의 교육으로 생명의 소중함을 인식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교사들이 생명 지킴이로서 생명 존중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살문제를 적극적으로 예방 할 수 있을 것 이다"고 밝혔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과속 방지턱 일제 정비

정읍시는 지난달 21일부터 관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 방지턱을 일제 조사하여 규격에 맞지 않는 시설에 대해서 대대적인 시설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고 2일 밝혔다. 유진섭 시장은 "기준미달 과속방지턱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 차량 파손, 교통소통 장애 등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과속방지턱에 대해 일제 정비를 시행하여 시민의 안전과 교통소통에 원활을 기하라"고 관계부서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시에서는 관내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과속방지턱에 대하여 일제조사가 완료되는 대로, 조사결과에 따라 시설보수, 도색 및 철거 등 정비 유형별로 분류하고 금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대대적인 보수·보강 작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정읍시에서는 앞으로 마을연결 및 간선도로에 신규로 설치되는 과속방지턱에 대해서도 철저히 관련 시 설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2차선도로 기준 설치규정은 폭 3.6m, 높이 10cm 이하다.

/정읍=김대환기자

“농식품 명인에 도전하세요”

고창군, 이달 28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신청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농식품분야의 고창명인을 발굴하여 고창 농식품의 명품화와 지역의 음식문화를 선도하여 고창의 위상을 높이고자 '고창군 농식품명인' 발굴에 나섰다.

지난달 31일 군에 따르면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춘 명인을 발굴·육성하고, 고창군 농특산물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9월 28일까지 신청을 접수받는다.

군은 '고창군 농식품명인' 발굴을 위해 지난해 12월 '고창군 농식품명인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했으며, 올해 4월 시행규칙을 제정하는 등 농식품명인 발

굴에 앞장서고 있다.

'고창군 농식품명인'은 주소와 영업장 소재지가 고창군에 소재하고 있으면서, 지역 농특산물을 주요재료로 하여 해당 식품을 제조·가공·조리하는 사람이면 누구든 신청 가능하다.

신청방법은 지정신청서 및 관련서류 등을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고창군 명인 심사위원회를 통해 사실여부 검토 및 현장심사 등을 통해 고창군 농식품명인이 지정된다.

지정된 명인에게는 명인 인증서 및 인증교과 교부는 물론,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우선권 부여,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 맛 집 지도 등재 및 추천, 그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에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고창만의 명인을 발굴해 고창 농식품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춰 '농생명 문화 살려 다시 치솟는 한반도 첫 수도 고창'을 이뤄갈 것"이라며 "농생명식품산업은 결코 사양되지 않은 중요한 생명산업으로 농업과 생명식품산업을 연계하여 그 가치사슬을 넓혀 농업소득의 증대와 함께 명실상부한 농업생명산업의 1번지로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내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 4개 선정

기초생활거점 2개소 마을 만들기 2개마을 국도비 76억원 확보

정읍시가 지난달 31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19년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에서 4개 사업이 선정됐다

시에 따르면 기초생활거점사업 분야에 입양면(40억원)과 칠보면(40억원), 마을만들기 분야에 소성 모촌마을(5억원)과 영원 신기마을(5억원)이 최종 선정됐다.

시는 사업 선정에 따라 확보한 국·도비 76억원에 시비 17억원을 더한 총 93억원을 투입해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읍면과 마을의 신청을 받아 농촌현장포럼, 주민 역량강화 교육 등 단계별 사항을 꼼꼼하게 준비하는 등 공모사업에 전략으로 대응해 왔다. 특히 주민이 주도하는 사업 추진을 위해 추진위원회를 구성, 담당 공무원들과 함께 예비 사업계획서를 수립하는 등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시는 앞으로 주민 컨설팅과 주민·행정 간 협력적인 시스템 구축을 통



정읍시가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됐다. 사진은 영원 신기마을을 자료사진.

해 예비사업 내용 보완 등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의 일환으로 지역주민과 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워크숍을 실시하고 지역 개발 전문가들이 사업계획 수립도 지원할 계획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국비 70%, 도비 13.5%, 시비 16.5%)은 교육과 의료, 문화·복지·경제 등 읍면 소재지의 중심 기능을 활성화 해 배후마을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거점육성 사업이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첫 고문 공인노무사 윤진식 노무사 위촉

고창군(군수 유기상)이 복잡 다양한 노동환경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동분쟁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노무행정 수행을 위해 '신세계 노무법인' 윤진식 노무사를 고창군 첫 고문 공인노무사로 위촉했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윤진식 노무사는 신세계노무법인 대표 노무사로 전북공인노무사회 회장과 전북대 법학과 겸임교수(노동법), (사)대한노사발전연구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윤 노무사는 2년

의 임기로 고창군의 노동관계법령 적용 및 해석에 대한 상시적인 법률 자문과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등 노동관계업무 전반에 대해 다양한 자문과 상담을 맡게 된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원칙과 배려가 상생하는 노사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단풍미인쇼핑몰, 추석맞이 할인 대잔치

이달 30일까지 이어져... 최대 50%까지 할인

농·특산물 온라인마켓 1번지인 정읍시 단풍미인쇼핑몰이 추석명절을 맞아 '추석맞이 할인행사'를 이달 30일까지 진행한다.

먼저, 명절에 인기 있는 한과, 한우, 떡, 햇잡곡 등을 최대 50%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거나 10+1, 12+1 등으로 묶음 할인 판매를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9월 3일 오전 9시부터 다음날 4일 오후 5시까지 할인인 판매 이벤트인 블랙데이를 운영한다. 질 좋은 블루베리·아로니아 등의 가공 상품 등 19개 품목을 최대 20%에서 최대 50%까지 가격 할인을 예고하여 고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시 관계자는 "단풍미인쇼핑몰에 입점한 상품은 품질과 포장 면에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 지역 특산품으로,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은 우체국 안전 배송 서비스를 통해 안전하게 배달된다"고 밝혔다. 또 "회원가입 후 구매 시 2% 적립

되는 만큼 많은 분들이 이용해 농업을 돕고 알찬 명절 소풍을 즐길 수 있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배송은 1만5,000원 이상 구매 시 무료이고, 18일 오전 11시 이전 주문결제 완료 건까지만 출고되고 그 이후 주문 건은 27일부터 순차적으로 출고 된다.

2012년 1월 9일에 오픈하여 올해로 8주년을 맞이한 단풍미인쇼핑몰은 그동안 46여억원의 매출과, 102개 입점업체와 800여개의 판매상품을 구성하여 활발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활동을 통해 지자체운영 농특산물 쇼핑 1번지로 그 명성을 자랑한다.

상품 주문은 '단풍미인쇼핑몰'(www.danpoongmall.jeongeup.go.kr)로 접속하거나 수신자 무료전화(☎080-535-4345), 063-532-4345 또는 스마트폰(m.danpoongmall.com)으로도 가능하다.

/정읍=김대환기자



부안군은 지난달 30일 2018년 평생교육 활성화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2018년 평생교육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다.

부안군 평생교육협의회 1차 회의 가져

부안군은 지난달 30일 2018년 평생교육 활성화 및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2018년 평생교육협의회 1차 회의'를 열었다고 31일 밝혔다.

협의회 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군청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회의는 제2차 협의회 구성에 따라 신규 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및 부위원장(이강세 군의원) 선출, 2018년 평생교육 사업 추진현황과, 부안군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행사 안내, 부안군 평생교육 발전 방안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됐다.

평생교육협의회는 권익현 부안군수를 의장으로 관내 교육기관 및 도내 대학교 평생교육원 등 지역사회에서 평생교육 경험이 풍부한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2년간 부안군 평생교육 주요사항을 협의·조정하거나 상호협

력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웃음과 희망이 함께하는 교육복지를 실현을 목표로 군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개최지 부안군이 글로벌 명품 평생학습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6월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된 부안군은 다양한 평생교육 지원사업과, 프로그램을 추진중이며 올해 9개 사업, 53개 프로그램에 1,000여명의 학습자가 참여하고 있고, 다가오는 10월 2일에는 제2회 부안군 평생학습 어울림 한마당 행사를 군청 앞 광장에서 연다.

/부안=이옥수기자

취득세 0원

보험료 0원

자동차세 0원

초기비용 0원

“자동차 이전 소유에서 사용으로”

신차 장기렌터카.오토리스 전문업체

“월사용료는 전국 최저 가격”

대표 이영근

국산차.수입차 전차종 신차 장기렌트.오토리스

전국 어디든 상담가능!! 지사 개설 문의

대표전화 : 1600 - 2542

스페셜오토리스.렌터카